

전북지역 한국대학생과 중국대학생의 일반음료와 알코올음료의 기호도와 섭취실태 비교

A Comparison of the Preference and Consumption Status of Non-Alcohol and Alcohol Beverages of Korean and Chinese University Students in the Jeonbuk Area

노정옥*, 장은하
전북대학교 식품영양학과

Rho Jeongok · Chang Eunha

Dept. of Food Science and Human Nutritio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preference and consumption status of non-alcohol and alcohol beverages of Korean and Chinese university students in the Jeonbuk are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from 241 Korean and 198 Chinese students. Statistical data analysis was completed using SPSS v. 12.0. 'Water' was the most commonly consumed non-alcohol beverages by all Korean and Chinese students. The intake frequency of 'carbonated drink' ($p < .001$), 'fruits/vegetable juice' ($p < .05$), and 'vinegar drink' ($p < .01$) of Chinese male students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Korean male students. The intake frequency of 'ionic drink' ($p < .001$; $p < .01$) of Korean male and female students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Chinese male and female students. The intake frequency of 'fruits/vegetable juice' ($p < .001$), 'milk' ($p < .01$), and 'soymilk' ($p < .05$) of Chinese female students was higher than the Korean female students. For the choosing the non-alcohol beverages, the Chinese female students were more health-oriented than the Korean female students ($p < .01$). 'Beer' was the most commonly consumed alcohol beverages by the Korean male and female and Chinese male students whereas 'Wine' was the most commonly consumed alcohol beverages by the Chinese female students. The intake frequency of 'Soju' of Korean male ($p < .001$) and female ($p < .001$) students was higher than the Chinese male and female students. The intake frequency of 'Wine' of Chinese male ($p < .05$) and female ($p < .001$) students higher than the Korean male and female students. Compared with the Chinese female students, the Korean female students more funds have to spend, in order to buy alcohol beverages ($p < .01$). More 81% of the Korean male and 80% of the female students reported drinking alcohol in 'beer house' whereas 78% of the Chinese male and 65% of female students drunken the alcohol in the 'beer house' or at 'home' ($p < .01$; $p < .001$). In conclusion, a practically and foreigner-friendly alcohol policies of university should be devised to reduce the alcohol consumption of students and related problems.

Keywords: alcohol beverage, non-alcohol beverage, Korean, Chinese, students

I. 서론

기호음료는 일반음료인 비알코올음료와 알코올음료로

* Corresponding Author: Rho, Jeong Ok,
Tel: 063-270 4135 Fax: 063-270-3854
Email: jorho@chonbuk.ac.kr

구분되며 이들 음료는 우리 식생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Jung *et al.*, 2001). 현재 시판되고 있는 일반음료는 탄산음료를 비롯하여 커피, 이온음료, 과일주스, 비타민 음료, 녹차음료 등이 있으며 갈증해소, 심리적 위안, 원활한 분위기 조성 등의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Kang *et al.*, 2006). 음료의 기호도와 섭취량은 성별, 연령, 식사내용, 식사량, 간식량, 운동량, 사회 환경, 경제상태, 광고 등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er *et al.*, 2008). 그러나 탄산음료를 비롯한 일부 음료의 대부분은 empty calorie foods로 취급되며 지나친 음료섭취는 다른 음식의 섭취를 방해하며 영양소 섭취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 더욱이 탄산음료는 제조과정에서 첨가되는 당분, 카페인, 유기산 등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Kang *et al.*, 2006). 최근 청소년들의 비만을 증가와 관련하여 패스트푸드와 탄산음료 등을 통한 지방과 당분의 섭취증가도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다(Han & Joo, 2005). Her *et al.*(2008)은 청소년이 마시는 음료의 종류에 따른 식행동과 사회성, 분노표현과의 관계 연구에서 커피, 탄산음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녹차, 홍차, 우유, 유제품, 과일주스로부터는 대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받으므로 청소년들이 올바른 음료선택을 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대학생들은 Shin과 Chung(2007)의 연구에서 조사대상자의 87.8%가 음료를 마실 때 건강에 대한 고려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커피의 기호도와 섭취빈도가 낮은 반면 전통음료의 기호도와 섭취빈도는 높은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Yeon *et al.*(2009)은 영양소의 밀도가 낮은 커피를 통한 열량섭취는 전반적인 식사의 영양밀도를 낮출 수 있으며, 부가적인 열량의 섭취는 비만의 원인이 되므로 여대생들은 많은 커피의 섭취를 자제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Shin과 Chung(2007)은 외식시장의 성장과 함께 성장한 커피전문점이 젊은 층의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카페인함유 음료의 섭취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한편, 최근 우리사회의 경제위기에 따른 구조조정, 구직의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알코올음료의 섭취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Yang, 2012). Ministry of Health & Welfare(2012)의 2010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19세 이상 성인의 77.8%가 한달에 1회 이상 음주한 경험이 있으며 남자 60.4%, 여자 43.3%가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더욱이 1회 평균 음주량이 7잔 이상이며 주 2회 이상 음주

하는 고위험 음주비율은 남자 24.9%, 여자 7.4%로 나타났다. Oh(2011)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들은 음주는 대인관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술을 잘 마시는 것을 우대할 뿐만 아니라 많이 마시는 것을 관대하게 받아주고 있어 우리나라의 음주문화는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하였다. 특히, 대학생은 성인으로 간주되어 대학생의 음주가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있으며 실제로 대학생들은 신입생 환영회, 동아리모임, 및 체육대회 등 거의 모든 행사에서 술을 마시며 술을 권하는 음주문화가 대학 내에 만연되어 있다(Dongailbo, 2012). Shin과 Chung(2007)의 연구에서 인천지역 대학생의 55.7%는 한달에 1~4회, 23.2%는 일주일에 2~3회, 2.1%는 거의 매일 술을 마시고 있으며, Oh(2011)의 연구에서 원주지역 대학생의 71.3%(남학생 78.8%, 여학생 61.7%)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음주로 인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되었다. Lenk *et al.*(2012)의 미국대학생 대상연구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지난달에 최소한 5회 또는 그 이상의 음주를 한 미국학생의 비율은 41.7%에서 44.7%로 증가하였으며, 음주로 인한 사망건수도 1998년 1440건에서 2005년 1825건으로 증가하면서 미국대학생들의 음주문제의 심각성이 재인식되어 대학차원의 금주운동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음주문제는 한국대학생 뿐만 아니라 중국유학생들도 우려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Kyung과 Jang(2010)은 중국남학생 중 42.9%가 문제음주자이며, 중국학생들과 한국학생과의 교류빈도가 높아질수록 음주빈도도 함께 높아진다고 하였다. Wang(2008)의 대구지역 중국유학생대상 연구에서 중국유학생의 음주로 인한 행동상의 문제는 우려할 만한 상황이며, 특히 기숙사 거주학생들보다 하숙을 하는 학생들이 더 많이 문제에 노출되고 있어 중국유학생들 대상의 절주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한국대학생의 음료섭취 관련연구는 전통음료 및 커피섭취(Choi *et al.*, 2009; Hwang & Kim, 2006; Lee & Byun, 2006; Shin & Chung, 2007; Yeon *et al.*, 2009), 운동선수의 음료섭취(Kim, 2007; Lee, 2007; Shin *et al.*, 2010), 알코올음료 섭취(Jung *et al.*, 2001; Yang *et al.*, 2004), 대학생 음주실태(Chung, 2007; Kim, 2010; Kim & Lee, 2008; Lee, 2009; Oh, 2011) 등과 중국유학생의 음주실태(Kyung & Jang, 2010; Wang, 2008) 연구가 일부 이루어졌으나 한국대학생과 중국유학생들의 음료섭취실태를 비교한 연구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북지역 한국대학생과 중국유학생을 대상으로 일반음료와 알코올음료 섭취실태를 조사함으로써, 한국대학생과 중국유학생 대상 음주교육 뿐만 아니라 건전한 대학의 음주문화 환경 구축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전북지역의 한국대학생과 중국유학생의 일반음료와 알코올음료 섭취실태 조사하기 위하여 선행연구(Jung *et al.*, 2001; Lee & Byun, 2006; Rho & Woo 2003; Shin & Chung, 2007)를 참조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예비조사는 2010년 7월 한국대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 설문지를 수정·보완한 후 중국어로 번역하였으며 번역된 설문지는 중국유학생 5명을 대상으로 다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설문조사는 2010년 9월 ~ 10월까지 전북지역 2개 대학에서 설문조사 실시 전 담당교수에게 설문조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조사허락을 구하였으며, 조사당일 학생들에게 설문조사의 목적을 설명한 후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학생들에게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한국대학생 250명, 중국유학생 210명을 대상으로 총 460부를 배부하여 449부가 회수되었으며 이중 불충분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한 439부(95.4%) 한국대학생 241부, 중국대학생 198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2. 조사내용

본 연구를 위해 개발된 설문지는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 전공, 거주상태 등 일반사항 5문항, 일반음료는 물, 커피, 티 등 9종의 음료에 대한 기호도 및 섭취빈도, 구매 장소, 음료 선택 시 고려요인 등 4문항, 알코올음료는 맥주, 소주, 막걸리 등 6종의 음료에 대한 기호도 및 섭취빈도, 한달에 지출비용, 음주 목적 및 장소, 술 선택 시 고려요인 등 7문항으로 총 1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일반음료와 알코올음료의 기호도 및 섭취빈도는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음료의 기호도는 ‘매우 좋아한다’(5), ‘좋아한다’(4), ‘보통이다’(3), ‘싫어한다’(2), ‘매우 싫어

한다’(1)로 측정하였으며, 음료의 섭취빈도는 ‘매일 마신다’(5), ‘주2~3회 마신다’(4), ‘주1회 마신다’(3), ‘월2~3회 마신다’(2), ‘거의 안 마신다’(1)로 측정하였다.

3. 통계분석

자료의 분석은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12.0를 이용하여 빈도,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구매 장소 및 구매 시 고려요인 등은 조사대상자의 성별로 χ^2 검정을 이용하여 통계적인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음료의 기호도 및 섭취빈도 등 독립된 두 집단의 평균값은 t-검정 (Independent samples t-test)을 이용하여 통계적인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조사도구의 신뢰도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음료의 기호도 항목의 Cronbach's alpha값은 0.7418, 음료의 섭취빈도는 0.7560이었다.

III.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조사결과는 <Table 1>과 같다. 조사대상자는 한국대학생 241명, 중국유학생 198명으로 남학생 43.7%(한국 25.7%, 중국 18.0%), 여학생 56.3%(한국 29.2%, 중국 27.1%)이었다. 한국남학생의 평균연령은 ‘21.5세’, 중국남학생은 ‘23.3세’, 한국여학생 ‘21.7세’, 중국여학생 ‘22.3세’이었다. 학생들의 전공 분야는 한국학생은 ‘이공계열’이 중국학생은 ‘인문사회계열’이 많았다. 거주형태는 한국남학생은 ‘가족과 함께’ 53.1%, ‘자취’ 41.6%이며 한국여학생도 가족과 함께’ 54.7%, ‘자취’ 41.4%이나 중국남학생과 여학생은 ‘자취’가 각각 94.9%와 97.5%로 높게 나타났다. Wang(2008)의 경북지역의 경우 42.2%의 중국학생이 ‘자취’, 35.6%는 ‘기숙사’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북지역과 차이를 보였다. 한국남녀학생들의 한달 생활비는 ‘30만원 미만’이 중국남녀학생들은 ‘30만원 이상’이 높았다. Shin과 Chung(2007)의 연구에서 인천지역 대학생의 63.9%의 한달 용돈이 30만원 미만으로 보고되어 한국대학생들의 평균 한달 용돈 수준은 지역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	Male			Female		
	KS (n=113)	CS (n=79)	Total (n=192)	KS (n=128)	CS (n=119)	Total (n=247)
Age(year)	21.5±2.4 ¹⁾	23.3±1.8	22.3±2.4	21.7±1.4	22.3±2.0	22.0±1.7
Major						
Engineering & natural science	88(77.9)	17(21.5)	105(54.7)	99(77.3)	27(22.7)	126(51.0)
Liberal arts & social science	5(22.1)	50(63.3)	75(39.1)	29(22.7)	60(50.4)	89(36.0)
Language program	0(0.0)	12(15.2)	12(6.3)	0(0.0)	32(26.9)	32(13.0)
Type of residence						
Self-Boarding	47(41.6)	75(94.9)	122(63.5)	53(41.4)	116(97.5)	169(68.4)
One's own house	60(53.1)	0(0.0)	60(31.3)	70(54.7)	3(2.5)	73(29.6)
Boarding	6(5.3)	3(3.8)	9(4.7)	4(3.1)	0(0.0)	4(1.6)
Relative's	0(0.0)	1(1.3)	1(0.5)	1(0.8)	0(0.0)	1(0.4)
Monthly Income (10.000Won)						
>30	84(74.3)	32(40.5)	116(60.4)	86(67.2)	53(44.5)	139(56.3)
31~40	14(12.4)	20(25.3)	34(17.7)	29(22.7)	28(23.5)	57(23.1)
41<	15(13.3)	27(34.2)	42(21.9)	13(10.2)	38(31.9)	51(20.6)

¹⁾ Mean±SD

2. 일반음료의 섭취실태

1) 일반음료의 기호도 및 섭취빈도

일반음료의 기호도 조사결과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한국과 중국남녀학생들이 가장 높은 기호도를 보인 음료는 ‘물’이며 ‘식초음료’가 가장 낮은 기호도를 보였다. 남학생은 ‘이온 음료’에서 한국학생 4.02, 중국학생 3.19로 한국남학생이 유의적으로 높은 기호도를 보였다($p<.001$). 여학생은 ‘차’(3.51 ; 3.26)($p<.05$), ‘탄산음료’(3.16 ; 2.68)($p<.01$), ‘이온 음료’(3.41 ; 2.38)($p<.001$), ‘식초음료’(2.98 ; 2.23)($p<.001$)에서 한국여학생이 중국여학생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기호도를 보였다. 그러나 ‘두유’(3.30 ; 3.63)는 중국여학생의 기호도가 한국여학생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p<.05$).

일반음료 섭취빈도 조사결과는 <Table 3>과 같다. 조사대상 남녀학생들이 가장 높은 섭취빈도를 보인 음료는 ‘물’이며, ‘식초음료’가 가장 낮은 섭취빈도를 보였다.

‘이온음료’의 한국남학생의 섭취빈도는 3.27, 중국남학생은 2.53으로 한국학생의 섭취빈도가 유의적으로 높았다($p<.001$). 그러나 ‘탄산음료’(3.35 ; 3.77)($p<.01$), ‘과일/야채주스’(3.19 ; 3.58)($p<.05$), ‘식초음료’(1.41 ; 1.82)($p<.01$)는 중국남학생의 섭취빈도가 유의적으로 높았다. 여학생의 경우도 한국여학생의 ‘이온음료’(2.18 ; 1.74) 섭취빈도가 중국여학생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p<.001$). 그러나 중국여학생은 ‘과일/야채주스’(2.78 ; 3.46)($p<.001$), ‘우유’(3.47 ; 4.02)($p<.01$), ‘두유’(2.05 ; 2.36)($p<.05$)의 섭취빈도에서 한국여학생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

Kang *et al.*(2006)의 청소년의 음료섭취실태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탄산음료를 더 선호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탄산음료에 대한 기호도와 섭취빈도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여대생의 탄산음료의 섭취빈도가 청소년기보다 낮은 것은 커피의 섭취빈도가 상대적으로 증가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Choi *et al.*(2009)의 서울지역 남녀대학생의 40.0%는 월평균

(Table 2) Preference of non-alcohol beverage

Variable	Male				Female			
	KS (n=113)	CS (n=79)	Total (n=192)	t-value	KS (n=128)	CS (n=119)	Total (n=247)	t-value
Water	4.24±0.72 ¹⁾	4.14±0.84	4.20±0.77	0.878 ^{NS2)}	3.89±0.92	4.03±0.88	3.96±0.90	-1.248 ^{NS}
Milk	3.81±0.98	3.92±0.96	3.85±0.97	-0.834 ^{NS}	3.64±1.03	3.84±1.12	3.74±1.07	-1.463 ^{NS}
Fruits/Vegetable juice	3.91±0.86	3.73±0.92	3.84±0.89	1.368 ^{NS}	3.83±0.87	3.68±1.03	3.76±0.95	1.222 ^{NS}
Ionic drink	4.02±0.90	3.19±1.06	3.68±1.05	5.657 ^{***}	3.41±0.94	2.38±1.14	2.91±1.16	7.796 ^{***}
Soymilk	3.42±1.22	3.48±1.07	3.44±1.16	-0.381 ^{NS}	3.30±1.34	3.63±1.19	3.46±1.28	-2.063 [*]
Carbonated drink	3.46±0.97	3.28±0.93	3.39±0.96	1.295 ^{NS}	3.16±1.18	2.68±1.14	2.93±1.18	3.214 ^{**}
Tea	3.29±0.81	3.35±1.11	3.32±0.94	-0.427 ^{NS}	3.51±0.78	3.26±1.04	3.39±0.92	2.102 [*]
Coffee	3.40±1.04	3.16±1.02	3.30±1.04	1.546 ^{NS}	3.55±1.00	3.33±1.03	3.45±1.02	1.758 ^{NS}
Vinegar drink	2.24±1.00	2.14±1.06	2.20±1.03	0.663 ^{NS}	2.98±1.06	2.23±1.13	2.62±1.16	5.363 ^{***}

¹⁾ Mean±SD, Response: 5 point Likert scale (5: very like ~ 1: very dislike)

²⁾ NS: Not significant, *: $p < .05$, **: $p < .01$, ***: $p < .001$

3~5회 커피전문점을 방문하였으며, Park(2010)의 성남 지역 남녀대학생의 41.3%는 월평균 1~2회, 40.8%는 3회 이상 커피전문점을 방문하고 있었다.

Park *et al.*(2011)의 연구에서 51.4%의 여대생은 하루에 1잔, 29.3%는 하루에 2~3잔의 커피를 마시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Bae와 Kim(2009)의 여대생의 커피섭취량에 따른 영양섭취평가에서 커피 섭취군은 비섭취군에 비해 식이섬유소, 비타민 A와 B₆, 엽산 등의 섭취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채소류의 섭취 역시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Lim과 Kim(2003)도 여고생대상 연구에서 물을 많이 섭취한 학생이 카페인 음료 섭취량이 많은 학생보다 유의적으로 배변실태가 좋다고 보고하며 건강을 위해서는 카페인음료 섭취를 줄일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Yeon *et al.*(2009)은 우유와 휘핑크림과 같은 유제품을 포함하는 고열량 커피의 섭취빈도가 높은 여대생의 경우 전체적인 영양섭취양상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음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커피의 기호성으로 인해 커피의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단순히 커피의 섭취를 제한하기보다는 영양적으로 바람직한 커피의 섭취형태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겠다.

이온음료의 선호도와 관련하여 Kang *et al.*(2006)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Lee(2007)는 대학운동선수들의 경우 평상시와 운동 후의 음료섭취양상이 변화하는데, 평상시에는 물과 탄산음료를 주로 섭취하지만 훈련 후에는 스포츠음료와 물을 섭취빈도가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이 같은 선행연구 결과를 볼 때, 전북지역의 한국과 중국남학생들도 친구들과 함께하는 운동 할 때 물, 이온음료 및 탄산음료 등의 음료 섭취빈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3〉 Intake frequency of non-alcohol beverage

Variable	Male				Female			
	KS (n=113)	CS (n=79)	Total (n=192)	t-value	KS (n=128)	CS (n=119)	Total (n=247)	t-value
Water	4.92±0.43 ¹⁾	4.91±0.84	4.92±0.41	0.147 ^{NS2)}	4.80±0.81	4.93±0.41	4.86±0.65	-1.689 ^{NS}
Milk	3.81±1.17	4.09±0.98	3.93±1.10	-1.765 ^{NS}	3.47±1.27	4.02±1.17	3.73±1.25	-3.512 ^{**}
Coffee	3.39±1.45	3.73±1.23	3.53±1.34	-1.847 ^{NS}	3.56±1.31	3.58±1.17	3.57±1.24	-0.110 ^{NS}
Carbonated drink	3.35±1.15	3.77±0.96	3.52±1.09	-2.796 ^{**}	2.73±1.31	2.66±1.28	2.70±1.29	0.427 ^{NS}
Fruits/Vegetable juice	3.19±1.15	3.58±0.89	3.35±1.06	-2.520 [*]	2.78±1.11	3.46±1.09	3.11±1.15	-4.869 ^{***}
Ionic drink	3.27±1.05	2.53±1.18	2.97±1.16	4.581 ^{***}	2.18±1.06	1.74±0.95	1.97±1.03	3.423 ^{**}
Tea	2.44±1.19	2.70±1.34	2.55±1.26	-1.380 ^{NS}	2.63±1.23	2.80±1.27	2.71±1.28	-1.016 ^{NS}
Soymilk	2.23±1.23	2.37±1.08	2.29±1.17	-0.798 ^{NS}	2.05±1.23	2.36±1.27	2.20±1.26	-1.928 [*]
Vinegar drink	1.41±0.93	1.82±1.10	1.58±1.02	-2.749 ^{**}	1.67±1.02	1.55±0.90	1.62±0.96	0.960 ^{NS}

¹⁾ Mean±SD, Response: 5 point Likert scale (5: every day ~ 1: none)

²⁾ NS: Not significant, *: $p < .05$, **: $p < .01$, ***: $p < .001$

2) 일반음료 선택 시 고려요인

음료를 구매할 때 가장 고려하는 요인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남학생들은 맛(47.4%), ‘갈증해소’(26.6%) 및 ‘건강’(14.6%)을 주로 고려하고 있었다. 한국남학생은 맛(48.7%)을 가장 고려하고 있으며, 그다음은 ‘갈증해소’(36.3%)로 조사되었으나, 중국남학생은 맛(45.6%) > ‘건강’(27.8%) > ‘갈증해소’(12.7%) > ‘가격’(10.1%)로 나타나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 < .001$). Kang *et al.*(2006)의 연구에서 41.7%의 청소년들은 주로 마시는 음료를 ‘맛이 좋아서’ 선택하며, Yang과 Rho(2011)의 전북지역 복분자 음료제품 속성에 대한 연령별 중요도 평가에서 ‘음료의 맛’이 모든 연령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도 음료의 중요한 평가요인은 맛으로 확인되었다. 한국여학생은 음료의 ‘맛’(60.2%)을 가장 많이 고려하며 ‘기타’(13.3%), ‘갈증해소’(12.5%)의 순이었다. 중국여학생도 ‘맛’(54.6%)을 가장 많이 고려하지만 25.2%는 ‘건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어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 < .01$). 조사대상자들에게 ‘기타’를 직접 기입하도록 한 결과, 여학생들은 ‘체중조절’ 및 ‘음료광고’를 음료선택 시 고려하고 있었다. Lim(2009)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 유학생들은 현재 의료보험혜택이 없어 본인들의 건강유지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중국학생들은 한국학생들보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사료되며 이 같은 태도는 중국학생들이 음료를 선택 할 때 반영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Table 3>에 제시된 음료의 섭취빈도에서 중국남녀 학생의 과일 및 채소 주스, 우유, 두유의 섭취빈도는 한국남녀학생보다 높았다.

3) 일반음료 구입 장소

대학생들의 일반음료 구입 장소를 중복응답으로 조사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대학생들은 주로 ‘24시간 편의점’, ‘슈퍼마켓’ 및 ‘자판기’에서 음료를 구입하며, 한국남학생은 ‘24시간 편의점’(47.8%) > ‘슈퍼마켓’(23.0%) > ‘자판기’(20.4%) > ‘대형마트’(11.5%) 순이며, 중국남학생은 ‘슈퍼마켓’(45.6%) > ‘24시간 편의점’(43.0%) > ‘자판기’(34.2%) > ‘대형마트’(25.3%) 순으로 구입 장소가 조사되었다. Rho와 Woo(2003), Shin과 Chung(2007)은 인천지역 대학생들은 수업중간의 휴식시간에 자판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커피 및 음료수의 섭취빈도가 높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조사에서도 조사대상자들의 자판기 이용률이 높았으며, 특히 중국대학생들이 한국대학생들보다 자판기 이용률이 높았다. 한국여학생들은 한국남학생과 유사하게 ‘24시간 편의점’(40.6%)과 ‘슈퍼마켓’(30.5%)에서 주로 음료를 구입하며 그다음

<Table 4> Decision factor for the choosing the beverage

N(%)

Variable	Male			X ² -value	Female			X ² -value
	KS (n=113)	CS (n=79)	Total (n=192)		KS (n=128)	CS (n=119)	Total (n=247)	
Taste	55(48.7) ¹⁾	36(45.6)	91(47.4)	26.988 ^{***1)}	77(60.2)	65(54.6)	142(57.5)	14.684 ^{**}
to quench one's thirst	41(36.3)	10(12.7)	51(26.6)		16(12.5)	11(9.2)	27(10.9)	
Health	6(5.3)	22(27.8)	28(14.6)		12(9.4)	30(25.2)	42(17.0)	
Price	7(6.2)	8(10.1)	15(7.8)		6(4.7)	7(5.9)	13(5.3)	
Others	4(3.5)	3(3.8)	7(3.6)		17(13.3)	6(5.0)	23(9.3)	

¹⁾ **: p<.01, ***: p<.001

<Table 5> Purchasing place of non-alcohol beverage

N(%)

Variable	Male			Female		
	KS (n=113)	CS (n=79)	Total (n=192)	KS (n=128)	CS (n=119)	Total (n=247)
24hr convenience store	54(47.8) ¹⁾	34(43.0)	88(46.0)	52(40.6)	48(40.3)	106(40.5)
Supermarket	26(23.0)	36(45.6)	62(32.3)	39(30.5)	65(54.6)	104(42.1)
Vending machine	23(20.4)	27(34.2)	50(26.1)	13(10.2)	46(38.7)	59(23.9)
Chain market	13(11.5)	20(25.3)	33(17.2)	21(16.4)	32(26.9)	53(21.5)
Department store	0(0.0)	4(5.1)	4(2.1)	0(0.0)	7(5.9)	7(2.8)
Special shop	1(0.9)	2(2.5)	3(1.6)	11(8.6)	3(2.5)	14(5.7)
Others	1(0.5)	1(1.3)	2(1.0)	1(0.8)	5(4.2)	6(2.4)

¹⁾ Multi response

은 ‘대형마트’(16.4%)> ‘자판기’(10.2%)> ‘전문점’(8.6%)의 순이었다. 반면, 중국여학생은 ‘슈퍼마켓’에서의 구입빈도가 54.6%로 한국여학생 30.5% 보다 높았으며, 그다음은 ‘24시간 편의점’(40.3%)> ‘자판기’(38.7%)> ‘대형마트’(26.9%)의 순으로 구입 장소가 다양하였다. 이상과 같이 조사대상자들은 교내의 자판기와 학교근처의 24시간 편의점과 슈퍼마켓에서 주로 음료를 구입하고 있지만, 중국학생들의 경우 대형마트에서의 구입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학생들이 본인들의 생필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음료를 함께 구매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3. 알코올음료의 섭취실태

1) 알코올음료의 기호도 및 섭취빈도

조사대학생들의 알코올음료의 기호도 조사결과는

<Table 6>과 같다. 전체적으로 남학생들은 ‘맥주’, 여학생은 ‘와인’의 기호도가 가장 높았으며, 가장 낮은 기호도를 보인 것은 남학생은 ‘한국전통주’, 여학생은 ‘소주’로 나타났다. 남학생들은 ‘소주’(3.19 ; 2.06)(p<.001), ‘막걸리’(3.06 ; 2.30)(p<.001), ‘와인’(3.41 ; 3.04)(p<.01), ‘위스키’(2.99 ; 2.58)(p<.05), ‘한국전통주’(2.54 ; 2.04)(p<.01)에서 한국남학생의 기호도가 중국남학생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 여학생은 ‘맥주’(3.27 ; 2.62)(p<.001), ‘소주’(2.65 ; 1.69)(p<.001), ‘막걸리’(2.89 ; 2.28)(p<.001), ‘한국전통주’(2.52 ; 1.89)(p<.001)의 기호도가 한국여학생이 중국여학생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 Jung et al.(2001)의 연구에서 전남지역 남학생은 소주, 맥주, 막걸리, 와인의 순으로 선호하며, 여학생은 소주와 맥주의 선호도가 비슷하며 위스키의 선호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본

〈Table 6〉 Preference of alcohol beverage

Variable	Male				Female			
	KS (n=113)	CS (n=79)	Total (n=192)	t-value	KS (n=128)	CS (n=119)	Total (n=247)	t-value
Beer	3.57±1.11 ¹⁾	3.65±1.33	3.60±1.20	-0.434 ^{NS2)}	3.27±1.13	2.62±1.19	2.96±1.20	4.413 ^{***}
Wine	3.41±0.94	3.04±1.28	3.26±1.10	2.189 ^{**}	3.02±0.87	3.15±1.24	3.08±1.06	-0.989 ^{NS}
Whisky	2.99±1.18	2.58±1.29	2.82±1.24	2.243 [*]	2.43±1.05	2.30±1.24	2.37±1.14	0.868 ^{NS}
Makkoli	3.06±1.19	2.30±1.16	2.75±1.23	4.392 ^{***}	2.89±1.07	2.28±1.20	2.60±1.18	4.222 ^{***}
Soju	3.19±1.13	2.06±1.17	2.73±1.27	6.720 ^{***}	2.65±1.11	1.69±0.82	2.19±1.09	7.748 ^{***}
Traditional Korean alcohol beverage	2.54±1.07	2.04±1.04	2.33±1.09	3.232 ^{**}	2.52±1.01	1.89±0.96	2.22±1.04	5.025 ^{***}

¹⁾ Mean±SD, Response: 5 point Likert scale (5: very like ~ 1: very dislike)

²⁾ NS: Not significant, *: $p < .05$, **: $p < .01$, ***: $p < .001$

〈Table 7〉 Intake frequency of alcohol beverage

Variable	Male				Female			
	KS (n=113)	CS (n=79)	Total (n=192)	t-value	KS (n=128)	CS (n=119)	Total (n=247)	t-value
Beer	2.64±1.20 ¹⁾	2.81±1.12	2.71±1.17	-1.008 ^{NS2)}	2.04±0.99	1.89±0.93	1.97±0.96	1.212 ^{NS}
Soju	2.50±1.14	1.90±0.97	2.26±1.11	3.957 ^{***}	1.80±0.98	1.30±0.56	1.56±0.84	4.897 ^{***}
Makkoli	1.90±1.04	1.77±0.99	1.85±1.02	0.877 ^{NS}	1.39±0.71	1.43±0.77	1.41±0.74	-0.404 ^{NS}
Wine	1.45±0.88	1.77±0.89	1.58±0.89	-2.472 [*]	1.17±0.53	1.74±0.87	1.45±0.77	-6.135 ^{***}
Whisky	1.38±0.83	1.54±0.81	1.45±0.82	-1.359 ^{NS}	1.13±0.53	1.32±0.66	1.22±0.61	-2.548 [*]
Traditional Korean alcohol beverage	1.36±0.84	1.44±0.75	1.40±0.80	-0.684 ^{NS}	1.13±0.52	1.20±0.51	1.16±0.52	-1.168 ^{NS}

¹⁾ Mean±SD, Response: 5 point Likert scale (5: every day ~ 1: none)

²⁾ NS: Not significant, *: $p < .05$, ***: $p < .001$

연구에서 한국남여학생들은 맥주를 가장 선호하며 그다음은 와인으로 나타나 Jung *et al.*(2001)의 연구결과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조사대학생들의 알코올음료 섭취빈도 조사결과는 <Table 7>과 같다.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한국과 중국 남녀학생들이 가장 자주 마시는 주류는 ‘맥주’로 나타났다. ‘소주’는 한국남학생 2.50, 중국남학생 1.90으로 한국남학생이 중국남학생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 ($p < .001$). 그러나 ‘와인’은 중국남학생 1.77, 한국남학생 1.45로 중국남학생이 한국남학생보다 유의적으로 음주빈

도가 높았다($p < .05$). 여학생의 경우는 ‘소주’의 섭취빈도가 한국여학생(1.80)이 중국여학생(1.30)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p < .001$). 그러나 ‘와인’(1.17 ; 1.74)($p < .001$)과 ‘위스키’(1.13 ; 1.32)($p < .05$)는 중국여학생이 한국여학생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음주빈도를 보였다.

Smart(1996)의 알코올소비에 따른 행동적, 사회적 관련성 연구에서 브랜드를 마신 사람이 맥주를 마신 사람들보다 더 공격적이며, 맥주는 포도주보다 더 부정적인 감정상태를 보여주기 때문에 브랜드 또는 맥주를 마신 사람들이 와인을 마신 사람들보다 더 심각한 음주관련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하였다. 중국학생들의 음주실태를 조사한 Wang(2008)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음주경험 후 행동상의 문제가 더 높는데 이는 자신을 표출하기 위하여 과음을 하거나 빈번한 음주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연령이 낮거나 대학생생활의 만족도가 낮은 학생일수록 음주 후의 행동상의 문제가 많다고 보고하며 학생 스스로 한국대학생활에 적응하려는 노력과 다른 중국학생들의 지원 및 건전한 교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2) 조사대상자들의 음주관련 태도

<Table 8>에는 한국과 중국대학생들의 음주관련 태도에 관한 조사결과이다. 알코올음료 선택 시 남녀학생 모두 ‘맛’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며 국적별로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조사대상자들의 주된 음주 이유는 남녀학생 모두 ‘친구와의 만남’이었다. 특히, 한국남자대학생의 70.8%, 한국여학생의 58.6%가 친구를 만날 때 음주를 한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중국남학생은 ‘친구와의 만남’(44.3%) 이외에 생일, 환송회 등의 ‘특별한 모임’(21.5%)> ‘스트레스 해소’(19.0%)> ‘습관적으로’(10.1%)의 순으로 음주이유를 답하여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1$). 한국여학생도 한국남학생과 유사하게 ‘친구와의 만남’(58.6%)이 음주의 원인이었으나 중국여학생은 ‘특별한 모임’(47.1%)이 음주이유로 나타나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5$). Lee(2009)의 연구에서도 대학생들은 ‘기쁘거나 축하할 일이 있을 때’ 또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자리에서 술을 권유 받았을 때’ 음주를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본 조사의 한국학생과 중국학생 모두 친구와의 만남 또는 특별한 모임에서 음주를 한다고 답하여 선행연구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한국대학생들은 대학 입학 초기 사회인이 되었다는 해방감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는 스트레스 때문에 음주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신입생 환영회 등 행사에서는 과음으로 인해 사망사고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Dongailbo, 2012). 더욱이 일부 중국남학생들도 유학생생활에서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하여 음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Kyung & Jang, 2010) 대학교 신입생을 위한 음주폐해 교육은 물론 중국학생들의 빠른 한국대학교의 적응을 위한 학과 학생들과의 멘토링 연계 등의 실제적인 지원이 있어야 하겠다.

한달에 지출하는 음주비용은 전체 남학생의 41.7%가

‘3만원 미만’이었다. 그러나 한국남학생과 중국남학생은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한국남학생이 중국남학생보다 한달에 지출하는 음주비용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여학생의 경우, 한국여학생의 68.0%와 중국여학생의 86.6%는 ‘3만원 미만’이나, 한국여학생의 16.4%는 ‘3만원~5만원 사이’, 9.4%는 ‘5만원~10만원 사이’, 6.3%는 ‘10만원 이상’을 지출하나 중국여학생은 13.4%만이 ‘3만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어 한국여학생의 음주지출비용이 유의적으로 높았다($p<.01$). Lee(2009)는 대학생들의 음주에 따른 월평균 지출액이 많은 집단이 지출액이 낮은 집단보다 음주빈도가 높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알코올음료별 음주빈도가 한국과 중국남학생 모두 높기 때문에 지출비용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여학생의 경우는 한국여학생의 알코올음료별 음주빈도가 중국여학생보다 높아 지출비용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음주 장소는 한국남학생의 81.4%는 호프집, 와인바 등의 ‘전문주점’을 주로 이용하지만 중국남학생은 ‘전문주점’(54.4%)> ‘집’(24.1%)> ‘식당’(11.4%)의 순으로 한국남학생보다 다양한 음주장소를 보여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1$). 한국여학생의 80.5%는 한국남자대학생과 마찬가지로 ‘전문주점’에서 음주를 하지만, 중국여학생은 ‘전문주점’(48.7%)> ‘기타’(18.55%)> ‘집’(16.0%)> ‘식당’(14.3%)의 순으로 중국남학생처럼 다양한 음주장소로 나타나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1$).

Smart(1996)의 연구에 따르면 맥주는 젊은 남성들이 선호하며 맥주와 브랜드는 주로 식당에서, 포도주는 집에서 식사와 같이 마시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맥주의 음주빈도가 높은 한국남학생과 중국남학생은 주로 전문주점을 이용하지만 와인을 마시는 빈도가 높은 중국여학생들은 집에서도 음주를 한다고 답한 경우가 한국여학생보다 높아 Smart(1996)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Wang(2008)은 중국학생들의 음주 후 행동상의 문제는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보다 자취 또는 하숙을 하는 학생들이 높다고 보고하며 이는 기숙사내의 통제가 작용하기 때문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집에서 음주를 하는 빈도가 높은 중국남학생과 여학생들은 음주로 인한 행동상의 문제에 노출될 기회가 식당 등의 공공장소보다 높으므로 이들을 위한 음주교육의 실시가 필요하겠다. Lenk *et al.*(2012)은 미국대학의 음주정책 및 실천태도연구에서 대학생 대상의 절주캠페인행사는 학생회와 연합하여 학교 내 스포츠행사, 학교신문사, 대학방송국을 활용하는 것으로 보고하였

〈Table 8〉 Drinking behavior of alcohol beverage

N(%)

Variable	Male				Female			
	KS (n=113)	CS (n=79)	Total (n=192)	χ^2 -value	KS (n=128)	CS (n=119)	Total (n=247)	χ^2 -value
Decision factor for choosing a alcohol beverage								
Taste	54(47.8)	47(59.5)	101(52.6)	6.197 ^{NS1)}	78(60.0)	76(63.9)	154(62.3)	4.208 ^{NS}
Price	27(23.9)	10(12.7)	37(19.3)		14(10.9)	5(4.2)	19(7.7)	
Proof of alcohol	10(8.8)	10(12.7)	20(10.4)		23(18.0)	25(21.0)	48(19.4)	
Brand	13(11.5)	9(11.4)	22(11.5)		6(4.7)	5(4.2)	11(4.5)	
Variety	9(8.0)	3(3.8)	12(6.3)		7(5.5)	8(6.7)	15(6.1)	
Purchasing cost for alcohol beverage per month (Won)								
>30.000	39(34.5)	41(51.9)	80(41.7)	7.172 ^{NS}	87(68.0)	103(86.6)	190(76.9)	13.282 ^{**}
30.001- 50.000	28(24.8)	10(12.7)	38(19.8)		21(16.4)	9(7.6)	30(12.1)	
50.001-1.00.000	22(19.5)	13(16.5)	35(18.2)		12(9.4)	6(5.0)	18(7.3)	
1.000.000<	24(21.2)	15(19.0)	39(20.3)		8(6.3)	1(0.8)	9(3.6)	
Place for drinking alcohol								
Beer house	92(81.4)	43(54.4)	135(70.3)	19.806 ^{**}	103(80.5)	58(48.7)	161(65.2)	29.274 ^{***}
Home	6(5.3)	19(24.1)	25(13.0)		5(3.9)	19(16.0)	24(9.7)	
Restaurants	7(6.2)	9(11.4)	16(8.3)		11(8.6)	17(14.3)	28(11.3)	
University campus	2(1.8)	1(1.3)	3(1.6)		1(0.8)	3(2.5)	4(1.6)	
Others	6(5.3)	7(8.9)	13(6.8)		8(6.3)	22(18.5)	30(12.1)	
Reason of drinking alcohol beverage								
Meeting with friends	80(70.8)	35(44.3)	115(59.9)	24.466 ^{***}	75(58.6)	45(37.8)	120(48.6)	16.256 ^{**}
for special day	13(11.5)	17(21.5)	30(15.6)		30(23.4)	56(47.1)	86(34.8)	
Habitus	14(12.4)	8(10.1)	22(11.5)		5(3.9)	5(4.2)	10(4.0)	
Solution to a stress	2(1.8)	15(19.0)	17(8.9)		9(7.0)	5(4.2)	14(5.7)	
Others	4(3.5)	4(5.1)	8(4.2)		9(7.0)	8(6.7)	17(6.9)	

1) NS: Not significant, **: $p < .01$, ***: $p < .001$

다. 따라서 우리나라 대학도 학생회와 함께 학교의 방송 매체를 통하여 대학생들에게 무분별한 음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홍보는 물론 대학 내의 절주 동아리 지원 및 교내 음주 제한장소의 지정 등(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1) 건전한 음주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공동노력이 필요하겠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전북지역의 한국대학생 241명과 중국유학생 198명의 일반음료와 알코올음료에 대한 기호도 및 섭

취실태를 조사한 것이다. 응답한 설문지를 조사대상자의 국적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자는 남학생 43.7%(한국 25.7%, 중국 18.0%), 여학생 56.3%(한국 29.2%, 중국 27.1%)이었으며 평균연령은 한국남학생 '21.5세', 중국남학생 '23.3세', 한국여학생 '21.7세', 중국여학생 '22.3세'이었다. 전공분야는 '이공계열'이 '인문사회계열'보다 많았으며, 거주형태는 한국남녀학생 모두 '가족과 함께', 중국학생들은 '자취'가 높았다. 한국학생들의 한달 생활비는 '21~30만원'이 중국학생들은 '41만원 이상'이 높았다.

2. 한국과 중국남녀학생들이 가장 높은 기호도를 보인 음료는 '물'이며 '식초음료'가 가장 낮았다. 남학생은 '이온음료'($p < .001$), 여학생은 '차'($p < .05$), '탄산음료'($p < .01$), '이

온 음료'(p<.001), '식초음료'(p<.001) '두유'(p<.05)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3. 남녀학생들이 가장 높은 섭취빈도를 보인 음료는 '물'이며, '식초음료'가 가장 낮았다. 남학생은 '이온음료'(p<.001), '탄산음료'(p<.01), '과일/야채주스'(p<.05), '식초음료'(p<.01)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여학생은 '이온음료'(p<.001), '과일/야채주스'(p<.001), '우유'(p<.01), '두유'(p<.05)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4. 한국남학생의 음료 선택 시 기준은 맛(48.7%)> '갈증해소'(36.3%)의 순이며 중국남학생은 맛(45.6%)> '건강'(27.8%)> '갈증해소'(12.7%)> '가격'(10.1%)의 순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1). 한국과 중국여학생도 '맛'(60.2%)을 가장 많이 고려하지만 한국여학생은 '갈증해소'(12.5%)를, 중국여학생의 25.2%는 '건강'을 고려하고 있어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1). 음료의 구입장소는 한국남녀학생은 '24시간 편의점'과 '슈퍼마켓', 중국남녀학생들은 '슈퍼마켓', '24시간 편의점'이외에 '대형마트'와 '자판기'이용이 높았다.

5. 한국과 중국남학생이 가장 높은 기호도를 보인 주류는 '맥주'(3.60)이며, '한국전통주'(2.33)가 가장 낮았다. 남학생은 '소주'(p<.001), '막걸리'(p<.001), '와인'(p<.01), '위스키'(p<.05), '한국전통주'(p<.01)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한국여학생은 '맥주'(3.27), 중국여학생은 '와인'(3.15)의 기호도가 가장 높았다. 여학생은 '맥주'(p<.001), '소주'(p<.001), '막걸리'(p<.001), '한국전통주'(p<.001)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6. '소주'는 한국남학생이(p<.001) '와인'은 중국남학생의 음주빈도가 유의적으로 높았다(p<.05). 여학생은 '소주'가 한국여학생이(p<.001), '와인'(p<.001)과 '위스키'(p<.05)는 중국여학생이 유의적으로 높은 음주빈도를 보였다.

7. 알코올음료 선택 시 한국과 중국남녀학생들은 '맛'을 가장 고려하고 있으며 한달에 지출하는 음주비용은 한국남학생이 중국남학생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한국여학생의 16.4%는 '3만원~5만원 사이', 9.4%는 '5만원~10만원 사이', 6.3%는 '10만원 이상'을 지출하며, 중국여학생은 13.4%만이 '3만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어 한국여학생의 음주지출비용이 유의적으로 높았다(p<.01). 음주 장소는 한국남학생(81.4%)과 한국여학생(80.5%)은 '전문주점'을 주로 이용하고 있으나 중국남학생은 '전문주점'(54.4%)> '집'(24.1%)> '식당'(11.4%)의 순이며(p<.01), 중국여학생도 '전문주점'(48.7%)>

'기타'(18.55)> '집'(16.0%)> '식당'(14.3%)의 순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1).

이상과 같이 전북지역 한국대학생은 음료의 맛과 갈증해소를 위하여 물, 이온음료 및 커피의 섭취가 높았으나 중국유학생들은 이외에 건강을 고려하면서 과일/채소주스와 우유 및 두유의 섭취가 높았다. 따라서 학생들의 높은 자판기 이용을 고려하여 휴게실에 홍보매체를 게시하거나 학교방송국에서 지속적으로 건강한 음료선택을 위한 홍보방송이 필요하겠다. 알코올음료의 경우는 한국과 중국대학생 모두 높은 섭취빈도를 보였으나 한국학생들의 음주빈도와 음주비용이 중국학생보다 높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겠다. 그러나 중국유학생의 경우는 스트레스로 인한 잦은 음주뿐만 아니라 집에서 음주를 하고 있어 음주로 인한 행동상의 문제 발생의 위험이 높을 수 있으므로 중국유학생대상의 장학제도의 확대 및 한국학생과의 멘토-멘티 결연 등을 통하여 대학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겠다. 또한 음주사고 없는 알코올클린캠퍼스를 만들기 위하여 각종 대학행사의 음주사고 사전예방교육의 실시와 지도교수 지정 등의 제도적 안정장치가 필요하며, 대학 내 행사 시 주류광고 및 관측·후원행동 제한, 기숙사·학생회관·휴게실 등에서의 음주제한 등의 지속적인 절주캠페인을 학생회와 함께 공동으로 진행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주제어 : 일반음료, 알코올음료, 한국, 중국, 대학생

REFERENCES

- Bae, Y.J. & Kim, M.H. (2009). A study evaluating nutrient intake and diet quality in female college students according to coffee consumption. *J Korean Diet Association*, 15(2), 128-138.
- Choi, Y.S., Kim, Y.T. & Jhee, O.H. (2009). A study on university students' coffee shop use in the Seoul area. *Korean J Culinary Research*, 15(1), 287-295.
- Chosunilbo. (2012). More funds to spend, in order to smoking & drinking. <http://news.chosun.com>
- Chung, S.K. (2007). Factors influencing problem drinking

- among female college students in Korea. *Mental Health & Social Work*, 27(12), 176-198.
- Dongailbo. (2012). The adversary of freshman, Alcohol & obesity. <http://news.donga.com>
- Han, Y.S., & Joo, N.M. (2005). An analysis on the factors of adolescence obesity. *Korean J Food Culture*, 20(2), 172-185.
- Her, E.S., Lee, K.H., Bae, E.Y. & Lyu, E.S. (2008). Interrelation among beverage intake, food behavior and personality in adolescents. *Korean J Community Nutrition*, 13(2), 189-198.
- Hwang, S.J. & Kim, Y.S. (2006). Research on drinking traditional beverages among college students in Seoul. *Korean J Culinary Research*, 12(4), 213-224.
- Jung, B.M., Oh, E.S., Choi, S.M., & Cha Y.S. (2001). Survey of alcohol and non-alcoholic beverage preference in college students of the Chonnam area. *Korean J Community Nutrition*, 6(3), 290-296.
- Kang, B.S., Park, M.S., Cho, Y.S. & Lee, J.W. (2006). Beverage consumption and related factors among adolescents in the Chungnam urban area. *Korean J Community Nutrition*, 11(4), 469-478.
- Kim, K.H. (2007). Preference degrees and criteria for sports drinks choice of university students. *J Korea Sport Research*, 18(3), 163-174.
- Kim, S.D. (2010). A survey on the drinking culture of some university students in Kyeongbuk province. *Korean Public Health Research*, 36(1), 17-30.
- Kim, M.S., & Lee, H.S. (2008). Effects of leisure sport participation on the drinking behavior of undergraduates. *J Leisure & Recreation Studies*, 32(3), 5-11.
- Kyung, S.Y., & Jang, S.M. (2010). The effect of acculturative stress on depression and drinking problems among Chinese students in Korea. *Mental Health & Social Work*, 34(4), 399-421.
- Lee, H.J. (2009). *The effect of stress on alcohol and snack consumption of undergraduate students*. Unpublished master thesis, Sangji University, Korea.
- Lee, H.S. (2007). The study on collegiate athletes' beverage drinking pattern and knowledge about hydration and fluid replacement. *J Korean Nutrition*, 40(7), 650-657.
- Lee, Y.J. & Byun, G.I. (2006). A study on the preference and intake frequency of Korean traditional beverages. *Korean J Food Culture*, 21(1), 8-16.
- Lenk, K.M., Erickson, D.J., Nelson, T.F., Winters, K.C., & Toomey, T.L. (2012). Alcohol policies and practices among four-year colleges in the United States: Prevalence and patterns. *J Studies on Alcohol*, 73(3), 361-367.
- Lim, C.H. (2009). Acculturative stress and adjustment elements of Chinese students' studying in Korea. *Korean J Human Ecology*, 18(1), 93-112.
- Lim, E.T., & Kim, Y.N. (2003).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evalence of constipation and beverage intake of female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Korean J Community Nutrition*, 8(6), 856-866.
-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1). University campus without alcohol problems "Alcohol clean campus" <http://www.mest.go.kr>
-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2). Korean national health &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in 2010. <http://knhanes.cdc.go.kr>
- Oh, H.S. (2011). Alcohol consumption rates and the perception of drinking cultures among college students in the Wonju area. *Korean J Food Culture*, 26(2), 101-112.
- Park, J.H., Jung, J.H. & Kim, H.S. (2011). Study on dietary habits of college women according to the residence type in Seoul. *J Korean Diet Association*, 17(4), 335-348.
- Park, K.M. (2010). A study of college student's actual conditions of using coffee shops and choice attributes - Focused on Seongnam area. *Korean J Food & Nutrition*, 23(1), 52-62.
- Rho J.O., & Woo K.J. (2003). A comparison of dietary behavior and health-related lifestyles of food and nutrition major and non-major university students in Incheon area. *J East Asian Soc Dietary Life*, 13(3), 155-166
- Shin, M.G., Kim, H.Y, Park, S., & Park H. (2010). Analysis of nutrient intake and beverage intake status of male Taekwondo players. *Korean J Sport*

- Science*, 21(1), 919-928.
- Shin S.Y., & Chung, L.N. (2007). The preference and frequency of beverages related to health factors in university students. *Korean J Food Culture*, 22(4), 420-433.
- Smart, R.G. (1996). Behavioral and social consequence related to the consumption of different beverage types. *J Studies on Alcohol*, 57(1), 77-84.
- Wang, F. (2008). *The study about the foreign student drinking behavior in Korea*. Unpublished master thesis, Daegu Haany University, Korea.
- Yang, H.S., & Rho, J.O. (2011). A study on the consumption patterns, the importance of product properties, and the satisfaction levels of blackberry and mulberry fruit beverage products in the Jonbuk area. *J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9(10), 29-37.
- Yang, K.M., Park, C.S., & Jang J.H. (2004). Smoking, alcohol consumption and dietary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in the Kyungsan area. *J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2(6), 55-72.
- Yang, S.E. (2012). A comparative cohort study on the experiences of job loss and job seeking in Korea. *Korean J Human Ecology*, 21(1), 41-58.
- Yeon, J.Y., Bae, Y.J., Kim, M.H., Jo, H.K., Kim, E.Y., Lee, J.S., & Kim, M.H. (2009). Evaluation of nutrient intake and bone status of female college students according to the calorie consumption from coffee containing beverage. *Korean J Food & Nutrition*, 22(3), 430-442.

접 수 일 : 2012. 05. 04.

수정완료일 : 2012. 06. 12.

게재확정일 : 2012. 07. 15.